


## 후원 UP! 인권 UP!

행성인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행성인이 만드는 변화에 함께해 주세요!

회원가입 02-715-9984 / [www.lgbtpride.or.kr](http://www.lgbtpride.or.kr)

이 책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주년

## 1997~2017 활동보고서





#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2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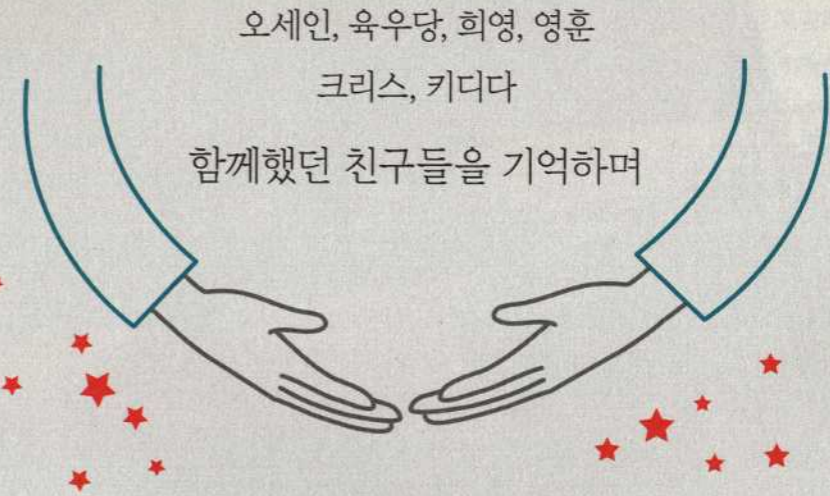
## 1997~2017 활동보고서

03	함께했던 친구들을 기억하며
04	인사말
06	축하합니다
10	행성인 20년
12	사진으로 보는 행성인 20년 - 저항과 연대의 순간들
18	연대활동
20	행성인의 원칙과 가치
23	행성인의 오늘
28	20주년 기념 성명
30	구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31	캠페인
32	살림살이
33	역대 발간 자료

### 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펴낸곳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주소	(04136)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0길 8 카리스장원빌딩 401호
발행일	2017년 7월 15일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0-90533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호림)
전화 / 팩스	02-715-9984 / 02-334-9984	제작 / 인쇄	(주)인디엔피 indnp.com
E-mail	lgbtpride@empas.com lgbtaction@gmail.com		
홈페이지	www.lgbtpride.or.kr		







## 변화를 위한 행성인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1997년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행성인이 만들어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체 이름도 동성애자인권연대로, 다시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회원들이 드나들고, 단체가 다루는 성소수자 인권의 의제와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행성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20년 행성인의 활동 궤적은 20년 남짓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행성인은 저항과 연대를 가치로 삼아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존엄한 인권을 외치는데 앞장섰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물길을 내면서 우리는 거리 위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을 만났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해나갔습니다. 2007년 시작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성소수자들의 첫 점거농성,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서울시청 무지개 농성, 2017년 19대 대선기간동안 긴급행동과 동성애자 군인 색출사건 규탄 투쟁 등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요한 투쟁의 경험들을 통해 행성인은 성장해왔습니다.

행성인 20년은 이후의 20년을 전망하고 활동을 기획하며 행성인의 비전을 아로새기는 시간입니다. 20년을 기억하고 의미부여하는 시도들은 성소수자 운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이는 지금 여기,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성소수자 인권을 요구하며 새로운 시간을 기획하는 과정을 예고합니다.

행성인이 지금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행성인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라도 자신의 언어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을 회원들, 성소수자들에게 브로슈어를 헌정합니다. 지금의 기록을 통해 기록되지 않은 이들의 활동이 다시금 의미부여 되기를, 이후 구축해나갈 활동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성인 공동운영위원장 **웅, 호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내게는 아직은 <행성인>이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워낙 <동인련>으로 알고 불러왔던 세월이 너무 긴 탓입니다.**

행성인의 전신이었던 동인련은 초기부터 집회현장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낫설었지만 그 깃발을 집회현장에서 펼쳐졌을 때의 감격이 있었고, 진보진영에서조차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연대활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성애만 알던 무식한 진보진영의 인식을 바꾸었고, 다양성과 담을 쌓은 우리 사회를 바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활동가들이 진보진영의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권운동도 훨씬 풍부해졌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대학생들의 동성애인권연합으로 출발하여 <동인련>으로, 다시 <행성인>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한 지 20년, 이제 성년이 된 행성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활동원칙처럼 더욱 활발한 연대활동으로 세상을 레인보우로 물들이길 바랍니다.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행성인의 2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행성인은 한국 성소수자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인권증진뿐 아니라 사회각층의 반인권적 차별을 반대해왔습니다. 무엇보다 행성인은 HIV/AIDS 인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행성인은 KNP+의 훌륭한 활동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행성인 활동가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느 인권운동만큼이나 HIV/AIDS 운동 역시 제도적 배제와 차별 뿐 아니라 사회의 혐오에도 직면하지만,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하는 행성인 활동가들을 보면 저희들도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는 오랫동안 감염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HIV/AIDS 인권팀은 천군만마와 같이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며 힘이 되는 행성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손문수**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대표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스무해를 맞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자국들을 축하합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추모를 위해서 행성인을 구체적으로 만났습니다. 故육우당과 故송국현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바꾸는 투쟁이며 연대로서의 추모를 함께 했습니다. 장애인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이 함께 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의 요구를 좀 더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불평등을 유지하고 선별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에 있다는 것을 함께 외쳤습니다.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요구하면서 문제는 동성애가 아니라 군대가 정상적인 몸을 구별하고,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을 조장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함께 외쳤습니다. 소수자들이 만나고 섞이고 흔들리면서 만들어어나가는 해방의 길은 운동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조급함을 덜어내고, 장밋빛보다 더욱 다양한 색깔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변화를, 사회의 변화를 위한 마주침들을 가져나가고 싶습니다.

**소중한 동료이자 벗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펼쳐지는 행성인의 여섯 빛깔의 무지개 깃발은 지금, 바로 여기에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식이자 또 그 광장 혹은 거리의 누군가에게는 표류하던 어두운 바다 위에서 만난 희망의 좌표라 생각합니다. 늘 무지개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성소수자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요구하고 더불어 이 사회의 수많은 소수자들과 함께 연대의 힘을 외치며 긴 시간 지치지 않고 달려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 행성인의 발자취가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시간들 역시 늘 미처 이 사회의 눈길이 닿지 못한 곳, 그리고 아직 호명되지 못한 많은 소수자들과의 연대와 약자들을 위한 투쟁 그리고 무지개색의 아름다운 변화의 시간들로 빼곡히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빛깔 무지개 깃발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희망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벅차게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동료이자 벗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찬영**

한국계이인권  
운동단체 친구사이  
2017년 대표

정율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등  
운영위원장

**마음의 고향 같기도 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벌써 20주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발굴해내고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행성인의 활동을 보면서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늘 봅니다. 상처도 많고, 버거웠던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튀는 사람없이 '행성인'이 고유명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회원들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작은 활동이라도 연결하려는 활동가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이제는 행성인 없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여러 이슈에 개입해왔고,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같이 새로운 단체를 인큐베이팅하는 능력마저 갖췄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무지개 깃발을 띄우고 쉬지 않고 연대운동을 이어왔던 행성인의 20년은 성소수자를 광장의 주인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의 순간들을 되짚어보면서 행성인의 미래를 기획했으면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만큼 도전받는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굳건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아픔들에 귀를 열어두고,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성소수자 인권의 지평을 더 넓게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합시다. 행성인 활동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살 청년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되었지만 행성인은 여전히 제 삶의 자랑입니다.

김일란

성적소수문화  
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감독

**행성인의 20주년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2009년 1월 20일, 한국사회를 뒤흔든 용산참사가 있었습니다. 긴 투쟁 끝에 355 일만에 장례를 치른 날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장례행렬이 한눈에 들어오게 촬영할 수 없을까 궁리하다가, 어느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작게 들리던 상여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다섯 열사의 영정과 만장에 뒤로 이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무지개깃발이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았다"라고 중얼거리면서, 렌즈를 조였습니다. 문득 이런 집회 같은 곳에 가면, 무조건 무지개깃발을 찾아 촬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무지개가 없나?'하면서 두리번 걸릴 때면 언제나 저 멀리 무지개깃발이 보였습니다. 그 깃발을 들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동인연, 지금의 행성인이었습니다.

무지개깃발을 보면 반가웠고, 그 깃발을 들고 있는 행성인 활동가들이 든든했습니다. 요즘에는 인권침해 현장이나 투쟁의 현장에서 무지개깃발을 찾아서 가까이 가보면, 행성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성소수자인권운동이 다양해지고 넓어졌다는 뜻일 겁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행성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고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고생해주세요.



# 행성인 20년을 일궈온 사람들

**1997~1998년** 양지용(대표), 제희(총무), 홍선민(후원회장), 진달래(후원회 부회장)  
임태훈(정책국장), 나영진, 정율, 이우정, 허승철(정책국), 최미연(교육국장)  
김호세(출판국장 / 사무국장)

**1998~1999년** 나선우(대표), 최미연(교육국장), 송초아(출판국장), 양지용(사무국장)

**1999~2002년** 임태훈(대표), 최미연(운영위원), 고승우(사무국장), 송초아  
배홍현, 이나라(활동가)

**2002~2004년** 정율(대표), 고승우(사무국장), 종익(상근활동가), 변공, 나라, 김태희  
June, 옥, 류이찌, 광이경, 원희영, 여기동(활동가)

**2005년** 정율(사무국장), 정숙, 강형진, 원희영, 고승우, 찬솔, 이경(활동가)

**2006~2007년** 장병권(사무국장), 정율, 정숙, 철, 이경, 해와, 현아(활동가)

**2008년** 정율, 장병권, 정숙(사무국), 기동, 나라, 상근, 웅, 신이, 지옥, 한기, 알콜샘  
덕현, 현아(거름활동가)

**2009년** 정율, 병권, 아니마, 해와, 신이(활동가), 류찬

**2010년** 정율(운영위원장), 경태, 나라, 이경, 정숙, 병권(운영위원)

**2011년** 정율(운영위원장), 광이경, 김정숙, 장병권(운영위원), 조정우, 경태(활동가)

**2012년** 광이경(운영위원장), 병권, 류은찬, 형태, 오리, 유결, 정숙(운영위원)

**2013년** 광이경(운영위원장), 병권, 이덕현, 정율, 나라, 남웅, 형태, 상근, 모리(운영위원)

**2014년** 이덕현(운영위원장), 병권, 정율, 나라, 남웅, 조나단, 지민, 서진, 호림, 종원(운영위원)

**2015년** 호림, 웅(공동운영위원장), 나라, 종원, 모리, 해리, 영민, 용민, 형태, 에버(운영위원)

**2016년** 호림, 웅(공동운영위원장), 나라, 오소리, 재성, 모리, 사과, 박장군, 윤진  
마루(운영위원)

**2017년** 호림, 웅(공동운영위원장), 나라, 오소리, 모리, 박장군, 어나더, 유결, 류은찬, 별(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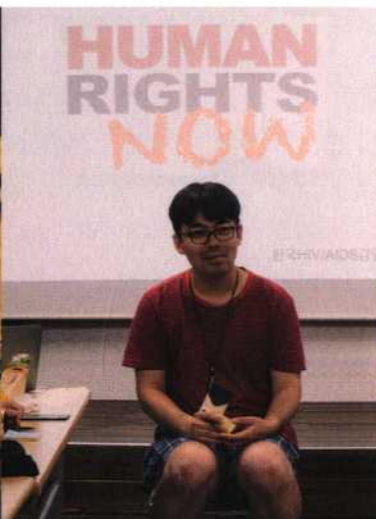
## 회계감사

**2010년** 여기동 / **2011~2014년** 양지용 / **2015~2017년** 박종권

## 조정위원회

**2015년** 이경, 웅, 나단 / **2016년** 이경, 나단, 신이 / **2017년** 혜정, 신이, 경태

그리고 수많은 회원 / 후원회원들





## 저항과 연대의 순간들

1997년 12월 21일

대동인 홍보와 기금마련을 위한 이벤트 "맛있는 불량식품"  
(장소 : 신촌 레즈비언바 '라브리스')



1998년 1월 23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항의방문



1998년 3월 15일

소식지 <Dyke> 창간

1998년 6월 23일

학국인권단체협의회 주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참석



2000년 10월 27일 ~ 11월 1일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캠페인,  
제5회 인권영화제



### COMINGOUT2000 후원의 밤

우리의 친구인 홍석천 동성친구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는 동성친구 개인의 삶이 아니라 확실한 소수자 모두의 정치적 행동입니다. 그의 방송백귀와 명예회복을 위해 나아가 성적 소수자 권리의 권리를 위해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성친구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서명과 모금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 동성친구는 모 방송사에 출연했습니다.



2003년

육우당의 죽음과 청소년보호법상 동성애차별조항 철폐 투쟁



2002년 ~ 2004년

이라크 전쟁 반대, 파병 반대 활동



2002년 1월

동성애자인권연대 4기 출범,  
소식지 <LGBT PAPER> 창간



2001년 7월 31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2001년 5월 19일 ~ 20일

제1회 대학 동성애자 연합캠프





2003년 6월 20일

스톤월 향쟁 34주년 기념 토론회



2004년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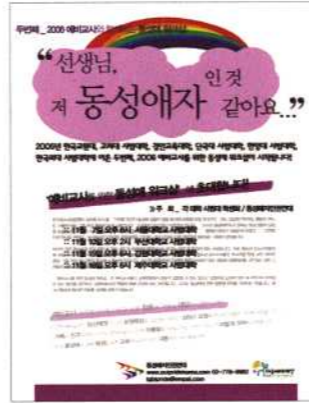
2005년

동성애자인권연대 퀴어퍼레이드 참가단 'Over the Rainbow'



2005년 ~ 2007년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동성애 워크샵



2006년 7월 29일 ~ 30일

성소수자 진보포럼



2006년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2010년 3월 8일

세계여성들의날 전국여성대회, 성소수자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캠페인



2009년

故 육우당, 오세인 추모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증진 캠페인



2008년 10월 7일

로슈 규탄 국제공동행동



2008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진행한 이주노동자 후원 모금



2007년 10월 31일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번개



2007년

퀴어문화축제 참가단 '에이즈와 연대'





2010년 10월 29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1년 3월 31일

군형법 92조 합헌 판결 규탄  
기자회견



2011년 7월 1일

<후천성 인권결핍 사회를  
아웃팅하다> 출판 기념회



2011년 8월 24일 ~ 30일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대회 참가



2011년 12월 14일

차별없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농성



2012년 9월 15일

동성애자인권연대 15주년 기념  
사무실 이전을 위한 후원의 밤



2016년

행성인 인권캠프



2015년 4월 24일

故 육우당 추모,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이상한 연대문화제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2014년 12월 6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촉구,  
박원순 사과 요구 서울시정 점거 농성



2013년

故 육우당 10주기 추모 문화제





무지개깃발 들고 연대를 일구다



행성인은 꾸준히 노동자들의 투정에 무지개깃발을 들고 참여했다. 2004년, 노동절 집회에 성소수자 참가단의 모습

2004년



용산참사 현장 연대방문

2009년 추석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피켓을 들고 참가한 동인련 회원들

2008년 5월

2015년

4월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

7월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 농성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투쟁 3주년 맞이 '살삼한 연대' 투쟁문화제



성소수자들이 함께 조직한 퀴어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여

2011년 7월

소수자노동권팀은 재능, 콜트콜텍, 포이동 등 투쟁현장을 찾아가는 '연대한바퀴' 프로그램 진행

겨울

정리하고 비정규직 국가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범국민공동행동

7월

'성소수자 무지개타고 강정오로!'라는 제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투쟁한 강정마을을 방문

2012년 3월

2016년

6월 <무지개 별동별, 유성 노동자를 만나다> 성소수자와 유성 노동자의 만남 문화제

10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시작된 뒤 열린 민중총궐기

11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운동 속 행성인





## 행성인 활동원칙

(1998년 제정)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 간의 연대는 물론 국제 연대를 강화하여 전세계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계급, 계층,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비성소수자들과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활동한다.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우리는 다양한 성소수자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2015년 제정)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부딪히는 곳이기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정체성이 밝혀져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나, 소수자 비하적인 욕설을 듣게 된다거나,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말로 훈계를 듣게 된다거나, 특정한 정체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한다거나,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행성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 행성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평등한 행성인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부착해놓고,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 시작 전에는 이 약속들을 공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으나,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고 공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행성인을 찾아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토론을 통해 언제나 변경 가능합니다.

-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모임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청소년, 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임 공간에 신경을 씁시다)
- 처음 보는 사이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말을 놓을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합니다.
- 내가 누구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합니다.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존중합니다)
- OO다워야 하는 건 이제 그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 정체성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괜찮은지 묻고, 원치 않은 공개를 피합니다.
- 소수자(여성/장애/질병/나이/인종) 비하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건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때 그때 표현하고 신뢰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해결합니다. 이를 위해 불편한 것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듭니다.
-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 모임에 새로 온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어울립니다.



#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20주년 비전, 가치, 미션 (2017년 제정)

**비전** '행동하는 성소수자의 저항과 연대로 만드는 변화'



**미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들이 존엄과 권리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저항과 연대를 일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제도와 문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누구나 행성인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저항하고 투쟁해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를 기억합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들리고 보일 때, 일상의 차별을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가정, 학교, 직장을 비롯해 삶의 공간 곳곳에서 겪는 배제와 모욕, 차별을 감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성인 20주년을 맞이한 2017년 한국 사회는 천만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행성인은 한국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권리와 평등을 요구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성인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29일 마지막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하는 행성인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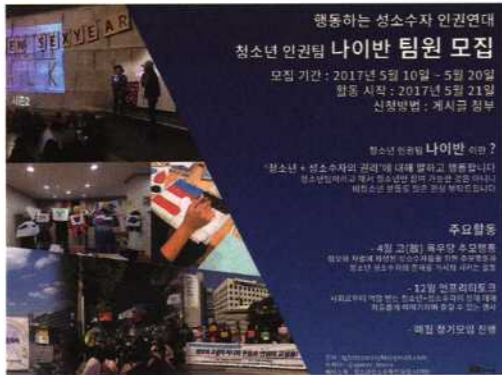


2017년 5월 26일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에 항의하는 행동에도 많은 행성인 회원들이 참여



**활동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



2009년부터 만들어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년 4월 말에는 '육우당 추모 및 청소년 성소수자 무지개 봄꽃 피우다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노동권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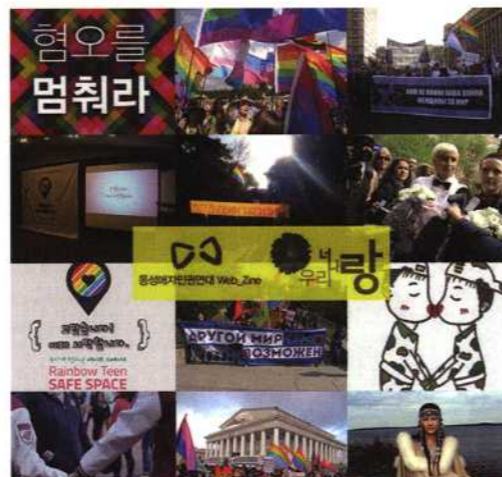
성소수자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내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일하는 성소수자 모임, 노동관련 세미나 및 평등한 일터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HIV/AIDS 인권팀**



HIV/AIDS 감염인과 에이즈의 주범으로 공격당하는 취약 그룹의 연대를 바탕으로 감염인과 취약그룹의 인권 보장이 진정한 에이즈 예방임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웹진기획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활동과 성소수자 이슈를 알리는 웹 매거진 <너, 나, 우리 "랑">을 만듭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매월 정기모임을 진행하며 성소수자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존재를 알리는 활동을 벌입니다.

**회원활동**

**신입회원모임 디딤돌**



신입회원들에게 단체를 소개하고, 활동의 길잡이를 제공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모임입니다.

**회원모임**



매달 회원들이 모여 이슈를 둘러싼 토론, 회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고 활동을 나눕니다.



회원 소모임



몸짓패

노동운동 문화에서 만들어진 춤인 몸짓을 배우고 연대공연을 하는 모임



전국 퀴어 모여라

전국 각지에 사는 퀴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수집하는 모임



비거니즘 소모임  
바삭

종차별 구조를 다양한 방식으로 거부하는 성소수자들의 모임



등산모임  
흥산회

매월 1회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즐기는 등산모임



퀴어사진모임  
Camera

사진찍는 퀴어들의 모임



30+ 행성리  
청년회

30세 이상 회원 친목 모임



여성모임

격월로 1회 정기적으로 모이는 여성 성소수자 모임



철도 소모임  
레일보우

철도 교통수단 그리고 철도 여행을 좋아하는 퀴어들의 모임



퀴어들의 스터디  
퀴쓰

페미니즘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인권과 사회 문제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



책읽기 소모임

소설, 인문학 서적 등 매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



노래패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 행성인 20주년 기념활동



20주년 기념 성명

#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조직화된 혐오 선동의  
시대에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성인의  
투쟁 선언

2016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점철된 보수정치세력의 실상이 날날이 드러난 한 해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거리를 메웠다. 공권력에 막혀있던 광장을 열었고,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냈다. 2016년 마지막 날 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시민들은 사회가 나아지리라는 기대와 염원을 나누며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다. 2017년 한국 사회는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 구축은 단지 정권 퇴진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다르고 낯선 존재, 약하고 작은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목소리 내는 데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상상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장 한 칸에서 여성,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목소리와 행동들을 기억한다. 이에 행성인은 2017년 한국사회의 변화의 국면에서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되는 시대를 끝내자. 지난 몇 년 간 성소수자 혐오는 극우 정치세력에게 유용한 리볼버였다. 세를 키우던 혐오선동은 이명박 정권 들어 진보정치가 후퇴하는 분위기 속에 상승곡선을 그리더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였다. 관료사회도 성소수자 혐오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사업을 파기하고 보호 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직자들이 드는 이유는 '반대민원'이었다. 공공기관에서 혐오는 집단민원이었다. 아니, 집단민원은 관료집단 스스로 성소수자를 차별하기 위한 명분이고 불쏘시개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는 반성소수자 인사들이 공직에 안착했다. 거리 위의 집회부터 방송과 언론, 사회 서비스와 정책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선동은 사회의 대기를 혐오로 메웠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선동의 포화를 없애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혐오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혐오의 논리가 잔존한다면 성소수자 혐오가 사라질 지라도 성소수자를 향한 총구는 결국 다른 소수자를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를 규합하고 결속을 도모하며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이용하는 극우 정치집단의 파시즘적 전략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연대를 넓혀 나가며 함께 혐오선동에 맞설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자. 성소수자의 삶을 개선하고,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노력들은 혐오선동과 보수정권의 벽 앞에 번번이 좌절

되어 왔다. 2016년에도 헌법재판소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이야기 하며,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균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에이즈 예방법 상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은 여전히 감염인의 시민권을 가로막는다.

혐오세력의 조직화된 반대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요원하다. 결혼제도에서의 배제가 동성커플의 삶을 어떻게 불안하고 위태롭게 하는지,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의료보장이 트랜스젠더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함께 상상하고 요구해 나갈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낙인을 강화하고 내밀한 성적 관계에서 질병을 가진 존재를 불법화 하는 법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할 것이다. 제도적 권리의 공백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들을 어떻게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 할 것이다. 제도가 만들어내는 낙인과 구체적 권리의 부재가 삶의 경험들을 어떻게 주변화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어떤 상흔을 남기는지를 이야기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제도적 권리의 보장이 사회에 발 딛고 살아가는 성소수자 개개인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성소수자 공동체의 관계를 단단히 엮어내고, 서로를 돌보자. 2016년 퀴어퍼레이드 다음날 우리는 미국 올랜도 게이 클럽 '펄스'에서 발생한 비극적 총기 난사 사건을 전해 들어야 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 사건은 제도적 권리보장이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낙인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음을 증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성소수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과 감정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비극과 불행에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동체의 관계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돌볼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내쳐진 이들과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 삶을 떠난 이들을 챙기고,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다. 서로가 평등하게 관계 맺는 공동체를 일구며, 혐오와 차별에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를 붙잡을 것이다.

20년 전 행성인의 시작에는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개악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투쟁위원회'가 있었다. 그간 우리는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분연히 일어났던 성소수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세상이 바뀌어 왔음을 경험했다. 당신과 나의 결속과 연대는 우리를 지탱하고 나아가 목소리 키웠다. 조직화 된 혐오선동의 시대에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성인은 지금껏 그래왔듯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에서 한 해를 보낼 것이다. 함께 싸우자!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2017년 1월 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구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행성인 20년 활동을 역사화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출발로서, 2016년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을 받아 “저항과 연대를 기억하는 목소리 - 성소수자 운동사 구술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자료집 발간 기념회 ▼ 프로젝트 진행 과정 모습

**캠페인**

가장 행성인답게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한 해 동안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7가지 요구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주년 기념 캠페인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 HIV/AIDS 인권증진이 예방의 지름길! 에이즈 낙인을 없애자! #에이즈낙인OUT
- 트랜스젠더, 나답게 살 권리! #나답게\_살\_권리
- 교실에도 성소수자 있다! 교육에 다양성과 인권을! #성소수자도교과서에 #다양성을배우는학교
- 일터에 무지개를 띄워라! 성소수자에게 평등한 일터! #나답게\_일할\_권리
- 모두가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할 권리! #차별금지법NOW
- 평등한 사랑, 평등한 권리, 동성결혼 NOW! #동성결혼NOW #LoveWins
-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하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기념 행사

후원의밤(2017년 9월 16일 예정), 포럼(일시 미정) 등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20주년 특별 기금 마련 후원 사업 후원UP! 인권 UP!

20년을 달려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저항과 연대로 변화를 만드는 행성인을 응원해 주세요!  
20주년 특별기금은 앞으로의 20년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 상임활동가 확충 및 활동가 지원 확대
- 무지개텃밭 업그레이드! 교육장 확장 이전



행성인 활동의 근간은 회원 / 후원회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회비 후원금입니다.

100명의 회원 / 후원회원을 꿈꾸던 동인련, 행성인 회원 / 후원회원 1,000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6년 수입지출 내역



이월금	13,129,619원
후원수입	110,341,611원
사업수입	16,155,500원
잡수입	1,365,029원
<b>합 계</b>	<b>140,991,759원</b>



운영비	인건비	62,120,785원
	관리비	17,840,530원
	사무비	2,550,880원
	물건비	2,875,190원
운영비 소계		85,387,385원
사업비	팀별사업 및 운영회의	5,931,670원
	중점사업- 기획활동, 축제퍼레이드, 회원사업	21,179,472원
	연대사업	3,056,850원
	프로젝트 및 특별사업	10,732,800원
	사업비 소계	40,900,792원
기 타		1,709,200원
이월금		12,994,382원
<b>합 계</b>		<b>140,991,759원</b>



故 육우당 추모집 "내 혼은 꽃비 되어" 발행일 : 2006년 4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지침서 [첫번째] "선생님! 저 동성애자인거 같아요!" 발행일 : 2007년 4월 / 재발행 : 2010년 9월

후천성 인권 결핍 사회를 아웃팅 하다 : 두려움에서 걸어나온 동성애자 이야기 발행일 : 2011년 7월

성소수자 에이즈, 그 달관의 경지 발행일 : 2011년 10월

작은 무지개들의 비밀일기 - 청소년 성소수자 20명의 이야기를 담다 발행일 : 2011년 12월

에이즈, 다르게 생각하기- 법과 제도, 홍보캠페인, 언론보도를 통해 본 한국사회 에이즈 예방과 성 발행일 : 2012년 11월 30일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제1회 육우당 문학상 작품집 '깊은 밤을 날아서' 발행일 : 2013년 10월 30일

RECIPE- <살롱 드 에이즈> 인권교육 프로그램 북 발행일 : 2013년 11월 30일

제2회 육우당문학상 작품집 발행일 : 2014년 10월 18일

행성인 회원을 위한 HIV/AIDS 가이드북 발행일 : 2015년 12월 1일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북 발행일 : 2016년 6월 11일

성소수자 부모모임 인터뷰집 <나는 성소수자의 부모입니다> 발행일 : 2016년 6월 11일

그 외 다수